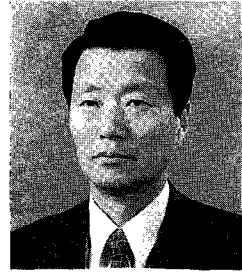


자동화 과잉생산체제 극복 방안



장 대 석

- 쌍용농장 대표
- 본회 안성분회장

우 리나라의 채란업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자금지원 등으로 자동화 생산 시설이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계란유통, 방역관리, 생산관리, 계분처리, 재해 예방 등은 생산규모 확대에 비하여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자동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부지원자금 및 외화리스를 이용한 농장이 대부분이어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원금 및 이자 결제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어 농장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생산과잉을 초래하여 계란의 저가 판매가 지속된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자동화시설 농장은 지속적인 농장 경영에 매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차체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채란업의 발전방향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아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자동화 실행계획들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시행 착오된 부분은 수정·보완하여 투자 효율의 극대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동화 시설은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화 시설은 자금의 투자가 많고 한 번 잘못 시설하면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설투자 계획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 시설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서도 농장 운영 능력 평가제를 중점 실시하여 지원금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농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화시설은 환기·보온(방서·방한)·점등의 조도, 계란 이송 및 선란, 사료급여 및 급수, 계분처리 문제 등이 체계적으로 설비되어야 하고 시설의 완고성과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동화 시설은 농장주의 시설운영 능력과 철저한 시설관리가 수반될 때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란 유통은 근대화되어야 한다.

그간 계란 유통은 생산규모의 성장에 비하여 일부 집하장을 통하여 계란을 수집·판매 하거나, 농장에서 소포장 제품은 일부 판매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계란은 상인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다단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란의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계란유통 단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당일 생산된 계란을 소비자에 공급한다는 정신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계란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셋째, 계란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원가 절감을 기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계사의 형태는 유창계사와 무창계사를 대별할 수 있다.

계사의 형태는 가능하면 무창계사를 권하고 싶으며 유창계사보다는 무창계사가 자연의 환경여건에 가깝게 상당부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극서·극한 계절에 생산물을 유지·지속함으로써 생산지수를 올릴 수 있고, 아울러 동

절기에 계사내 온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사료의 소비(연 수당사료 2kg)를 줄여 원가절감을 기하며, 점등의 조도를 낮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닭을 온순하게 만들어 계란의 청결도를 좋게 할 수 있다. 또한 계군별로 산란지수·폐사율·파란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 농장의 소독 실시는 모든 농장 및 연관업체들이 다함께 실시할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① 사료공급 차량은 해당 사료공장에서 필요 차량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사료공장).
- ② 농장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농장).
- ③ 청정 병아리 공급체제유지(부화장)
- ④ 병아리 질병예방 집중의 철저한 실시(농장 및 중추농장)
- ⑤ 계사 내외의 주기적인 소독실시(농장)
- ⑥ 질병 매개체(쥐, 고양이, 파리, 모기 등)의 근절노력(농장)
- ⑦ 농장내의 청결유지(농장)
- ⑧ 계란차량 소독실시(계란업자)
- ⑨ 계분차 및 닭운반차(노계, 중추) 소독실시(운반업자)

위에서 열거한 이외에도 노계처리방안, 계분의 이용율 증진, 계란 소비 홍보 등 우리 채란업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채란업자들은 한테뭉쳐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를 희망적으로 맞이할 것으로 믿어진다. **양계**